

시민단체 “조국 딸 인턴 취소해야”…병원앞 풍자 현판식

신(新) 전대협 “조국 딸 스펙 모두 허위”

“일선 의사들도 면허 정지 외치고 있어”

병원앞 현판식…‘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도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은 8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

국 일가의 입시비리 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조 장관 딸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고려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조치”라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면 딸 조씨의 의사면허 또한 자동 취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병원은 조씨를 (인턴으로) 합

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사면허는 물론이고 학위마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인턴으로 선발한 것”이라며 “특히 한일병원에는 여권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근무하고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이전에도 대선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나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 채용 문제로 몸살을 앓아 왔다”고 주장했다.

전대협 관계자들은 “한일병원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한일병원의 서약은 허술에 불과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피해를 입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조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한일병원은 지금이라도 의료 윤리를 회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한일병원 앞에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을 거는 등 비판 취지의 현판식을 진행했다.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조 장관의 딸 조씨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신전대협’ 회원들이 8일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인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새겨진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열차가 다 매진인데’

설날 연휴를 사흘 앞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 매진 알람이 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창가쪽 자리만 판매해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듯하다.

광주 YMCA “집단감염 온상된 교회, 시민께 깊이 사죄”

교회엔 비대면 예배 실천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광주 기독교청년연합회(YMCA)는 교회가 잇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며, 교회·교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 YMCA는 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고통 받는 광주시민들께 사죄드린다”면서 “팬데믹이 극복될 때마다 기독교에 뿌리를 뒀다고 자처하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BT), IM선교회 등이 감염 대유행의 새 진원이 된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

스로 종교·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방역 조치를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왜곡, 선동을 일삼는 모습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앙의 본질을 잃고 영적·정신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슬픈 일이다”며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 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촉발한 일부 교회를 향해서는 “은 국민이 나와 이웃을 위해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한 시점에 ‘대면예배’ 중요성을 앞세워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 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향해 “방역당국이 오는 14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천 ▲설 연휴 중 고향·친지 방문 자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을 제한했다.

기동취재본부

새학기 교원 인사 두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날선 비판

“공정·투명·시의적절한 인사들”

새학기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두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교육공무원 267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79명과 교사 2498명이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학교와 원격교육 강화에 주안점을 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학교폭력 심의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사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사전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시교육청은 인턴제 장

학과와 미발령 기간제교사 배치 문제 해결, 사전 공개되지 않은 인사 기준에 따른 인사 행정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인사 기준과 인사 행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중등교사 인사 발령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관성에 젖어 무능력하게도 2월 첫 주까지 중등교사 인사 발령을 발표하지 못한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교사 적기 인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유나기자

‘집단감염 차단’ 광주시, 목욕탕·사우나 시설 집중점검

점검반 편성해 191개소 공중목욕장 점검

광주시가 최근 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중목욕탕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설 연휴기간 운영이 중단된 망월묘지공원(제1시립묘지공원)과 영락공원(제2시립묘지공원) 등에 추모객이 방문할 수 있어 온라인 성묘 등으로 안내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지역의 공중목욕탕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하고 8일 밝혔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공중목욕장은 191개소이다.

방역당국은 공중목욕탕 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편의실과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등 공용공간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음식 섭취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지역 목욕탕은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점검반은 불법 영업 여부도 집중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3일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방문자 5명과 가족 2명 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사우나 관련 감염자는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